민 족 문 화 경 전 이 야 기 총 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 族 文 字 出 版 专 项 资 金 资 助 项 目

까자흐족

哈萨克族

Hāsàkèzú

편 자 양 화
역 자 리태복

료 녕 민 족 출 판 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李太福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哈萨克族：朝鲜文 / 杨华编；李太福译.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62-8

Ⅰ. ①哈… Ⅱ. ①杨… ②李… Ⅲ. ①哈萨克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 ①K283.6-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16009号

哈萨克族
HASAKE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年9月第1版
印刷时间：2014年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862-8
定　　价：18.00元

法律顾问：陈　光
举报电话：024-23284336
版权专有　侵权必究
邮购电话：024-23284335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联系电话：024-23284340
网址：www. lnmzcbs.com
淘宝网店：http://lnmz2013. taobao. com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츠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쟈족)　　전산천
정 아(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쫭 족)
왕해연(챵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품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챵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쫭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툴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목 록

제1장 까자흐족 개황

까자흐족의 창세신화 /9
까자흐족기원에 관한 전설 (1) /11
까자흐족기원에 관한 전설 (2) /13

제2장 까자흐족의 생산방식

삼형제가 방목한 이야기 /17
사자와 늑대 그리고 여우가 포획물을 나눈 이야기 /29

제3장 까자흐족의 의식주행

까자흐족의 복식 /32
까자흐족의 음식 /35
초원 곳곳에 널려있는 유르트——까자흐족의 주택 /37
소와 말은 주요한 교통도구——까자흐족의 교통 /39

제4장 까자흐족의 인생의례

출생의례 /40
요람의례 /41
출생 한달 의례 /43

할례 /43
혼례 /45

제5장 까자흐족의 예술

돔브라에 관한 전설 /47
민요 《찌르레기》에 관한 전설 /49

제6장 까자흐족의 축제문화와 체육행사

까자흐족의 전통명절 /56
까자흐족의 체육행사 /57
"처녀가 총각쫓기"에 관한 전설 /59

제7장 까자흐족의 민간이야기

아버지의 당부 /63
가죽주머니의 비밀 /67
지혜로운 즈야단 /71
총명한 아들 /77

제1장 까자흐족 개황

까자흐족의 인구는120여만명(2000년 기준)으로 신강의 천산(天山) 남쪽과 북쪽의 광대한 지역에 분포되여있으며, 특히 천산북쪽에 많이 살고있다. 일리(伊犁)까자흐자치주는 까자흐족이 가장 많이 모여사는 지역이다. 그리고 모리(木垒)까자흐자치현, 바르콜(巴里坤)까자흐자치현, 감숙성의 이크싸이(阿克塞)까자흐자치현에도 까자흐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여있다. 우룸치(乌鲁木齐)시, 이닝(伊宁)시 등 도시에도 적지 않은 까자흐족이 생활하고있다.

까자흐족의 민간에는 인류의 기원에 관해 아래와 같은 신화와 전설이 널리 전해지고있다.

까자흐족의 창세신화

까자흐족의 창세신화에 따르면 오늘의 세계는 자사간(迦萨甘)이 창조한것이다. 자사간은 원래 "둥근 거울만한 하늘"과 "은전(银元)만한 땅"을 오늘과 같이 큰 하늘땅으로 늘여놓았다.

자사간은 황토로 인형 두개를 빚어 불에 구운후 인형의 배속에 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자 그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다. 자사간은 그중 남자를 아와아타(阿娲阿塔), 녀자를 아와아나(阿娲阿娜)로 이름 지어주었다. 아와아타와 아와아나는 사랑을 하게 되였다.

그들이 혼례를 올리려고 하자 마귀가 백방으로 훼방을 놓았다. 하여 처녀 총각은 어쩔수 없이 하늘로 날아올라 아와아타는 해가 되고 아와아나는 달이 되였으며 낮과 밤에 번갈아 얼굴을 내밀게 되였다. 마귀의 저주를 받은 그들은 그때부터 서로 만날수가 없었다. 비통한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되였다.

노한 자사간은 마귀를 징벌하기 위해 활을 당겨 마귀를 쏘았다. 우뢰소리는 바로 자가산이 활을 쏠 때의 시위소리이고 번개는 화살이 튕겨나갈 때 뿜은 불꽃이며 운석은 화살의 촉이다. 밤하늘의 별들은 아와아나의 몸에 단 "몽니차크"(까자흐족녀성들이 옷에 박는 진주보석)들이고 무지개는 아와아나가 양젖을 짤 때 쓰는 "화사크"(까자흐족녀성들이 양젖을 짤 때 사용하는 호모양의 노끈고리)이다.

"까자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광활한 초원에서 자유자재로 류동하는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까자흐족의 기원에 관해 수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백조에 관한 전설이다.

까자흐족기원에 관한 전설 (1)

아득한 옛날, 한 까자흐족부락과 타민족부락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외족을 징벌하는 도중 부락 수령이 통솔한 용사들은 넓은 고비사막을 지나게 되였다. 계절이 한 여름이라 고비사막은 화로속과 같아 고온에 용사들은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던중 카레차· 하더르라는 용사가 부상을 입은데다 피로까지 겹쳐 쓰러지게 되였다. 전우들은 그를 무척 동정했지만 전투를 위하여 그를 떨구어놓을수밖에 없었다. 하더르는 가까스로 기여 일어나 뜨거운 해볕속에서 홀로 앞으로 나갔다. 먹을것이 떨어지고 물도 없고 몸은 극도로 허약해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그에게로 다가오고있었다.

이 위급한 시각에 갑자기 하늘에 한 가닥의 틈이 열리더니 백조 한마리가 그사이로 날아나왔다. 백조는 카레차· 하더르에게 물을 가져다주었다. 그 물을 마신 하더르는 바로 정신을 차렸고 아픔도 사라졌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 백조가 갑자기 기막히게 아릿다운 처녀로 변한것이다. 하더르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라고 여겨 백조선녀와 혼례를 올렸다.

결혼후 그들은 남자아이를 하나 낳았다. 이름을 까자흐라고 지었는데, 그 뜻인즉 "백조"라는 말이다. 그후 까자흐는 다시 아들 셋을 나았는데 각각 베크알스(别克阿尔斯), 아크알스(阿克阿尔斯), 밍장알스(名江阿尔斯)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들은 후날 까자흐족의 대옥자(大玉兹), 중옥자(中玉兹), 소옥자(小玉兹)로 되였다. 이 세 옥자(玉兹)는 모두 까자흐족의 후예이기에 그들 스스로 "까자흐"를 자신들의 민족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정했다.

까자흐족의 거주지역에서는 하즈(哈孜—백조라는 뜻)라는 음을 부락이름, 지명, 호수이름에 붙여서 부르는 례가 아주 많다. 까자흐족사람들은 백조를 신성한 새로 숭상하며 희디흰 백조를 행운과 아름다운 령혼의 상징으로 간주하고있다. 때문에 백조의 깃털을 어린아이들의 앞가슴에 꽂아주기도 한다.

까자흐족기원에 관한 이야기중에는 300기사(骑士)가 "까자흐"의 선조라는 전설도 있다.

까자흐족기원에 관한 전설 (2)

멀고먼 옛날 크즈러알스탄이라 부르는 칸(고대 선비——鲜卑•돌궐——突厥•회흘——回纥 등 민족의 최고통치자)이 32개 부락을 통치하고있어 세력이 무척 강하였다. 그는 늘 군사를 통솔하고 타부락을 공격하여 많은 전리품들을 로획하군 했다.

칸은 한차례의 전투에서 절세의 미인을 포로로 잡아 그녀를 안해로 삼았다. 그 미인은 그후 남자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이의 온몸에 반점이 돋아있었다. 칸은 매우 괴이하게 여겨 흉조라고 판단하고 안해의 주장에 따라 아이를 실르강(锡尔河)에 던져버렸다. 이때 마침 강가에서 낚시하던 한 로인이 강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고 바로 건졌다. 로인은 아이를 친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웠다. 아이의 온몸에 반점이 돋아있는것을 본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아라스"라고 불렀는데 "반점"이라는 뜻이다.

까자흐족은 자체 언어를 가지고있다. 까자흐족은 일찍 돌궐문, 회흘문, 차가타이문자를 사용하다 기원 15세기 독자적인 까자흐문자를 점차 형성하였다. 20세기초엽, 까자흐족은 아랍어를 토대로 차가타이문자에 대해 일부 수정을 거쳐 오늘날 사용되고있는 현대 까자흐문자를 만들었다.

아라스는 총명하고 용감하며 활쏘기에 능해 부락사람들은 칭찬이 자자했다. 이 소식이 크즈러알스탄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바로 자기의 아들을 데려오려고 했다. 이때 그의 시위병 크탄바이와 마허비가 아라스를 급히 데려오기보다는 우선 그더러 자유자재로 생활하게 내버려두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건의했다. 칸은 시위병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첫해에는 크탄바이의 맏아들 오손더러 1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아라스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크탄바이의 둘째아들 버라터를 파견하여 1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아라스를 보좌하게 하고, 그 다음해에는 또 크탄바이의 셋째아들 알친에게 100명의 용사를 주어 아라스에게 가도록 했다.

아라스는 이 용감한 기사 300명을 통솔하여 린근의 부락들을 련속 공략하였다. 그때부터 이 용감한 300명의 기사와 그들에게 소속된 부락들을 "까자흐"라고 불렀는데 이는 "용감한 자유인"이라는 뜻이다.

자신의 지위를 확립한 아라스는 300명 용사들의 추대를 받아 칸의 자리에 올랐다. 아라스칸은 령토를 나누어 분봉하였는데, 실르강 상류지역은 오손이 거느린 100명 용사들의 령지로 봉하고 실르강 중류지역은 버라터가 거느린 100명의 용사들에게, 실르강 하류지역은 알친이 거느린 100명 용사들에게 봉해주었다. 고대 까자흐어에서 "100"을 이르는 음은 옥자(玉兹)의 음과 같다. 때문에 오손, 바라터, 알친이 거느린 100명의 용사들은 각기 "대옥자" "중옥자" "소옥자"로 불리게 되였다. 까자흐족사람들은 "아라스"를 조상으로 간주하고 대옥자, 중옥자, 소옥자의 후손으로 자칭하기때문에 통털어 까자흐족이라고 불렀다.

력사가 유구한 까자흐족은 주요하게 스키타이(塞种), 월지(月氏), 오손(乌孙), 흉노(匈奴) 등 부락과 부족들이 융합하여 이루진것으로 알려졌다. 까자흐족은 민족 형성초기부터 유목을 주요한 생활방식으로 삼았으며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민족으로 이름을 떨쳤다.

까자흐족은 일찍 원시적샤만을 종교신앙으로 삼았으나 그후에는 불교와 경교(景教——불교의 분파)를 신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8세기부터는 이슬람교가 까자흐초원에 전파되면서 15~18세기에 이르러서는 까자흐족 전체가 이스람교에 귀의(皈依)하게 되였다.

제2장 까자흐족의 생산방식

까자흐족 하면 떼를 이룬 소와 양, 건장한 말, 대렬을 이룬 락타 등과 함께 아름답고 드넓은 초원을 떠올리게 된다. 까자흐족의 목축업은 신강 전체 목축업 생산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나라 전체 목축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양, 말, 소, 락타는 까자흐족이 주로 기르는 가축종류이다. 신강의 세모양(细毛羊)과 알타이면양(阿勒泰大尾羊) 등은 모두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우량품종들이다. 이리말(伊犁马)과 바르콜말(巴里坤马) 역시 국내외에 잘 알려져있다. 유목을 위주로 하는 까자흐족에게는 목축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삼형제가 방목한 이야기

옛날 한 로인이 바이(부자라는 뜻)네 집에서 평생 고생하며 말을 방목했다. 이 로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안은 부지런하고 용감한 세 아들이 있는것이다. 그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런저런 잡일들을 도왔다. 그중 막내아들이 류달리 총명하고 령리하여 아버지가 어려운 살림살이때문에 고민을 할 때마다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주군 했다.

덧없는 세월이 흘러 로인은 어느덧 일을 더 할수 없는 나이가 되였다. 세 아들은 생계를 잇기 위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이의 말을 방목하려 하였지만 그들이 아직 미성년임을 안 바이는 방목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하여 로인의 가정은 생계가 끊기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였다. 그런데 이때 부하시라는 더 큰 바이가 그들의 집에 찾아왔다. 부하시는 라인을 나지막한 쿠얼스(가난한 목민들이 사는, 담장이 없는 작은 유르트)에서 불러내여 동정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듣자니 당신네 온집 식구가 일거리가 없다고 하던데 그 참 안됐구려.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집 말들을 당신의 아들들더러 방목하게 하는게 어떤가?"

"아이구, 정말 감사합니다. 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몇마리나 되는지요?…" 로인은 기뻐 어쩔줄 몰랐다.

그런데 부하시는 로인의 말허리를 자르며 로인의 물음에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했다. "단 나는 말몰이군을 한 사람만 쓰겠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자격이 있는 말몰이군에게는 그렇게 각박한 조건은 아닐세."

"무슨 조건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 자식들이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오래동안 저를 따라다녀서 방목에는 막히는데가 없습니다."